"침체한 경제 살리는데 집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1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 되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불필요한 규제 혁파·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것 대기업 계열사 유치에 전력

더불어민주당 김관영(52) 전북지사 당선인은 2일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민들께서 새로운 전북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와 맞대결을 벌여 압승한 김 당선인은 "선거를 치르면서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절감했다"며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어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유는

▲ 선거를 치르면서 '무너진 전북경제를 살려내라. 기득권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전북 정치를 개혁하라. 전북도의 자존심을 회복하라. 깨끗하고 유능한 도정을 펼쳐라' 등의 민심을 확인했다.

이런 절박한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180만 도민의 간절하고 절박한 민심은 전북 도정의 변화와 혁신, 전북 도민의 대통합으로 모이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선거운동 기간에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길에 동행한 조배숙 후보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전북 발전을 위해 어떤 도정을 펼칠 것인가

▲ 침체한 경제를 살려내는 데 집중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 불필요한 규제부터 혁파하고 정비하겠다. 신속하고 편리한 창업 지원 시스템도 재구축하겠다. 기업가들이 전북에 와서 크게 성장했다는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겠다.

큰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 도지사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기업 계열사 유치전에 뛰어들겠다. 전북 땅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더는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등지는 서글픈 일은 없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 아이들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다. 아이들부터 청년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꼭 만들고 싶다.

전북은 앞으로 농·생명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도약할 것이다. 자동차·조선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금융·탄소·그린 수소 혁신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 전환으로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

또 전북의 역사 문화와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관광벨트를 구축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 전북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 전북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 문제는 정치다. 기득권과 현실에 안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혁신에 나서겠다. 민주당이 전북 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치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전북 정치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정치 브로커의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솔선수범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를 실천에 옮기겠다.

-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은

▲ 승리의 감동은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 내일부터는 다시 민생현장에서부터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겠다. 늘 성원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에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연합뉴스

"학생 중심 미래·통합교육"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2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열린 사고로 소통 인재 키울 터 학생의회 신설 정책 검토·심의 탕평인사 소외된 사람없게 할 것

서거석(67)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2일 "전북교육을 바꿔 달라는 도민 열망을 받들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천호성(55·전주교육대학교 교수)·김윤태(58·우석대학교 교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 당선 소감은

▲ 지난 12년 침체한 전북교육을 바꿔 달라는 도민의 열망이 담긴 승리다. 그 뜻을 받들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바꿔 나가겠다.

지지해주신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전북교육을 위해 함께 경쟁한 김윤태, 천호성 후보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

- 가장 시급한 과제는

▲ 이념 중심의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영논리에 의한 편 가르기도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는 교육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교육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낡은 이념에 지배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열린 사고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통합의 전북교육을 만들어야 발전한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 전북교육의 방향은

▲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 서거석의 지향점이다. 2030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이다.

전북학생의회를 신설해 학생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심의하도록 하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하겠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의 불통으로 전북교육은 고립을 자초해 왔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열린 행정으로 지역과 함께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 지난 12년간 낡은 이념에 얽매여 편 가르기를 했다. 능력이 출중해도 일할 기회를 못 찾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도 했다. 탕평 인사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교육 가족과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정말 할 일이 많다. 지난 12년간 잘한 것은 계승하고, 고쳐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가겠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것이다.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겠다.

학생 여러분이 이제 교육의 주인이다. 앞으로 학생의회를 통해 학생들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검토·심의하겠다.

'해내는 사람' 서거석이 전북교육을 활기차게 바꾸겠다.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 저와 동행해달라. 전북교육 대전환의 주역은 바로 교육 가족과 도민이다.

/연합뉴스